

대외 불확실성 심화... AI 선제 투자하고 재무 안정성 챙긴다

전자업계 주총 마무리

삼성전자,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시설 투자·연구개발에 110조 투입
SK하이닉스, AI 메모리 호황 대응 증설·기술투자, 재무 안정성 확보
LG전자, AI 기반 포트폴리오 전환 냉각솔루션, 중장기 성장축 평가

국내 주요 전자업계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경영 화두는 'AI 투트랙'으로 압축됐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 안정과 수익성 방어를 병행하는 흐름이 주총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선제 투자와 함께 대외 변수에 대비한 체질 개선 기조가 동시에 부각됐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전자기업은 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5일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근 주총에서 AI를 중심에 둔 사업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성장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재무 체력과 사업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성장과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이 전면에서 부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가장 강한 투자 기조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메모리·파운드리·첨단 패키징 경쟁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HBM과 선단 공정 경쟁력 확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AI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경쟁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투자 없이는 시장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재무 체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회사는 최근 정기 주총에서 장기적으로 순현금 100조원 확보 목표를 설정하며 투자 여력 확대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증설과 첨단 공정 투자에 필요한 현금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HBM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호황에 대응한 증설과 기술 투자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자본 지출에 대비한 재무 안정성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시장 성장세는 이어지

지만 공급 사이클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AI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주총에서 로봇,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을 4대 미래 전략사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 확대에 따라 냉각 시스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축으로 평가된다.

회사의 전략은 기존 가진 중심 사업 구조에서 B2B와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히며,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명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IMA사업자지정 기대하세요 N2, IMA1



※ IMA란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보유 시 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NH투자증권

배터리 3사, 실적회복 기대 'ESS용 배터리' 핵심 변수

LG엔솔, 신규 수주 90GWh 목표
삼성SDI, 로봇·UAM 등 수주 다변화
SK온, 수익성 중심 수주·체질 개선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리튬인산철(LF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달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 과제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제시했다. ESS 시장 확대와 로봇 등 비전기차 분야 진출, 효율 중심 투자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실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특히 올해 ESS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맞춰 LFP 기반 ESS용 배터리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신규 수주 목표로 역대 최대 수준인 9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제시했고, ESS 배터리 생산 역량도 두 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ESS를 포함한

비전기차 사업 매출 비중을 40% 중반까지 끌어올려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북미 내 비중급계 LFP 배터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도 나설 방침이다.

삼성SDI는 전기차와 ESS를 넘어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응용처로 수주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각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ESS 제품 양산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SK온은 운영 구조 재 정비와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통해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추형용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생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ESS 사업 확대를 주요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는 결국 ESS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만으로는 실적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LFP 기반 ESS 배터리 공급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하면 지난해보다 뚜렷한 수익성 개선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관희 기자 wkh@

